

분노 조절 장애의 방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rson of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Jisun You*, Yeong-jin Chung**

*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in the society, anti-social crime cases such as murder due to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retaliatory driving and arson, etc, have occurred frequently. Therefor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n arson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arson related crimes due to PTED. The motivation for arson offenses were shown in the order of accidental(36.33%), family discord(23.96%), relieving frustration(16.10%), Mental disorder(12.26%) and pessimistic suicide(11.35%). Arson accidental cases were commonly the biggest reasons for accidental arson due to PTED. Therefore for arson offenses, professional and systematic treatment methods for PTED through cognitive approach should be developed, a systematic research on arson offenses should be studied by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arson research institutions and unification of investigation for arson offenses and researches should be strengthened. So We have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citizens through these preparation plans.

Key words: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PTED), arson offense, analyzing the cases

국문초록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살인, 보복운전, 방화 등 반사회적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범죄 사고사례의 분석을 통해 방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사했다. 방화범죄의 동기는 단순우발적(1,668건, 36.33%)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1,100건, 23.96%), 불만해소(739건, 16.10%), 정신이상(563건, 12.26%), 비관자살(521건, 1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

* Tel. +82-33-570-6825. Fax. +82-33-570-6828. E-mail. yjsmeto@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3-540-3121. E-mail. yjchung@kangwon.ac.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l. 17, 2015 / Revised: Oct. 1, 2015 / Accepted: Oct. 12, 2015

처럼 방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인 방화범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방화범죄 방화범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방화범죄의 수사나 연구를 강화하고 일원화시키는 등 방화범죄의 대처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제어: 분노 조절 장애, 방화범죄, 사고사례 분석

1. 서론

현대사회는 항상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구조로 우리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하고,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과도한 물질적인 추구로 인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양상을 띠고 있다. 또 경쟁사회와 민주사회에서는 계층화·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도태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사회적 입지에 대해 불만족과 열등감을 느껴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2015)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 수가 2010년(4,845명, 35%), 2011년(4,982명, 35.2%), 2012년(5,479명, 38.6%), 2013년(5,528명, 40.9%), 2014년(5,544명, 42%)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분노 조절 장애는 피할 수 없는 병임에 틀림없다. 그 중 Hankok Media Network(2015)에서 분노 조절 장애는 의학적으로 외상 후 격분장애라고 하며,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응 반응의 한 형태이다.

Jeffrey Wood(2007)에 의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남을 해하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짜증이 증가하다가 행동을 하고 난 후 안도감과 심지어 행복감까지 느끼게 되며, 충동 조절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병적 도박, 병적 도벽, 방화벽, 발모벽,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있으며, 최근에 인터넷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분노 조절 장애의 증상 중 하나인 방화는 인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키므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되어야 할 증상이다.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방화를 일으킬 수 있고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며, 주로 단독범행으로 일어나고 밤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찰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Li(2015)에 따르면, 방화는 인간에 의한 위협이며 갑자기 발생하고, 사회에 대한 심각한 손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상 대응 조치가 필요하며, 동시에 방화의 죽음은 그들이 죽어가기 전에 깊은 고통이며 절망이다.

방화는 5대 강력범죄(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성적 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라고 취급해 안전 불감증이 다른 범죄들보다 높아 일반 국민들에 있어 관심이 저조한 강력범죄에 속한다. 방화는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격으로 정의된다.

방화는 이제 정신적·인성적 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라고 취급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다각도

로 사회나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앞서 방화에 대한 연구로 Bradford(1982)는 방화가 가장 자주 인격 장애, 정신 지체 또는 우울 신경 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Jackson, et. al.(1987)는 방화의 전위된 공격성과 행동을 자극하는 가설의 적응을 통합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Heo & Bak(2006)에 의하면 방화범은 정신적인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을 청소년 방화범으로 손꼽았다. Choi(2001)는 방화 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로 방화범죄의 통제를 위한 활용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어 주민차원의 자율 방법체계의 강화, 공공기관 등에 의한 방화범죄의 통제방안 그리고 방화범의 정신분석학적 치료를 위한 처방 등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Jung(2005)은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연구로 입법적·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각 기관별 대응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구축, 방화범죄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 민간단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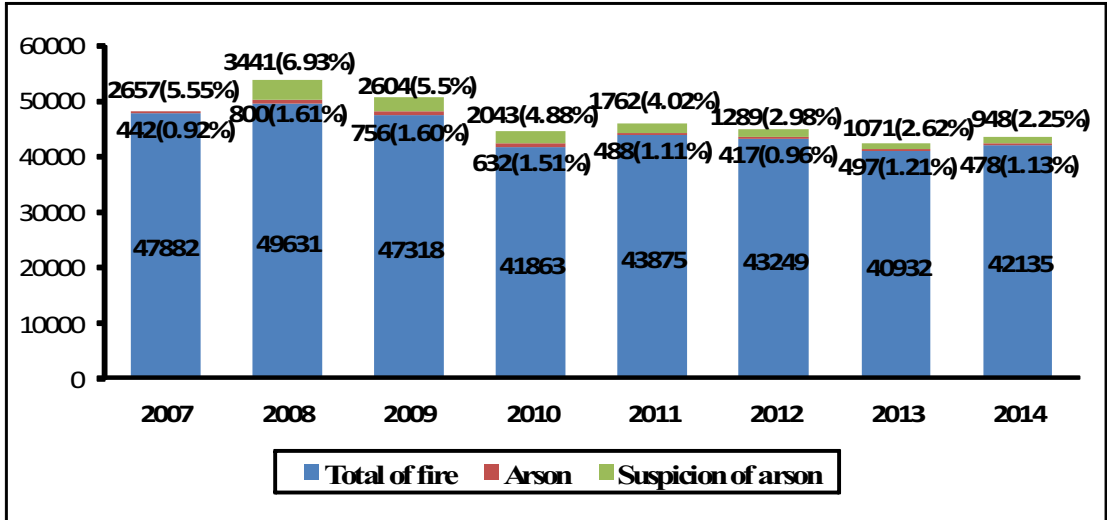
또한 Choi(2008)은 방화화재의 특성 및 방재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방화화재의 모형실험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화화재 시는 일반화재에 비하여 연기발생량이 약 1.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재실자의 피난시간은 허용피난시간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 및 소방시설의 성능 향상을 통하여 건축법규 및 소방법규의 개정건의 방안 등 국내실정에 맞는 방화화재 방재대책 추진방안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Lee, et. al.(2015)에서는 방화와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연구(방화사건을 중심으로)는 2개의 사례분석을 통해 분노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는 사망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착화하거나 상해하는 등 목적이 피해자들의 신체인 반면, 이익방화의 경우는 피해자의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착화하거나 상해를 가하진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회적 범죄가 늘어나는 실정에 맞추어 분노 조절 장애와 방화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방화의 통계치 분석에서 방화 발생 건수를 통해 방화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의 매우 높은 특성인 우발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중점으로 방화사례를 분석하고 우발적이고 심리적인 영향(분노 조절 장애) 방화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해 인지 행동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프로그램 등 분노 조절 방법을 제시하고 방화범죄 수사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II. 방화의 통계치 분석



<Figure 1> The number of arson in total fire cases (2007~2014 years)

※ Source: A Reco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National Fire Data System(2015).

<Figure 1>에 2007년~2014년도까지 총 화재 건수, 방화건수 그리고 방화의심 건수를 연도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항목에서 총 화재건수는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마지막으로 미상으로 크게 분류하고, 그 중 실화는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누출, 교통사고, 부주의, 기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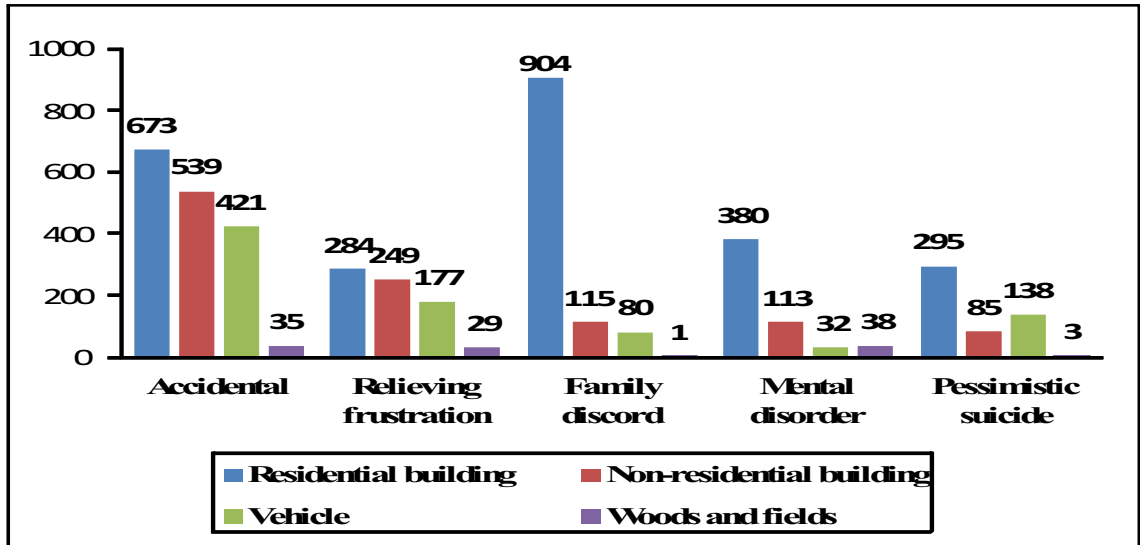
방화 현장에서는 직접·간접적인 물증, 목격자, 보험관계, 원한관계 등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방화조사는 경찰·소방 그리고 보험회사 등 여러 기관들의 협력과 정보교류에 어려움이 많고, 무엇보다도 목격자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변복과 제약들로 인한 진술거부 등이 있어 사건 확인이 쉽지 않다. 또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아 방화의심 건수가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방화건수와 방화의심 건수를 통틀어 방화건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부적으로 방화건수와 방화의심 건수를 구분해 그래프로 나타냈지만, 방화로 판단한 여러 사건들을 물적 증거의 부족이나, 관계자나 수사자들의 수사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방화로 확정짓기 보다는 방화의심으로 판단한 사건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방화건수와 방화의심 건수를 합한 건수를 앞으로 이 논문에서는 방화건수로 지칭하였다.

총 화재발생 건수에서 방화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10%미만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3,000건 내외로 방화건수가 나타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다. 그리고 1997년(776건), 1998년(1,157건), 2001년(1,375건)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방화범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앞으로 현대사회가 진행될수록 사회는 더 각박해지고 혼란해지므로 방화범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방화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의 및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통계치와 사례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개인적인 예방대책을 세워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Figure 2> The motive for the arson states (2005-2014 years)

※ Source: A Reco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National Fire Data System(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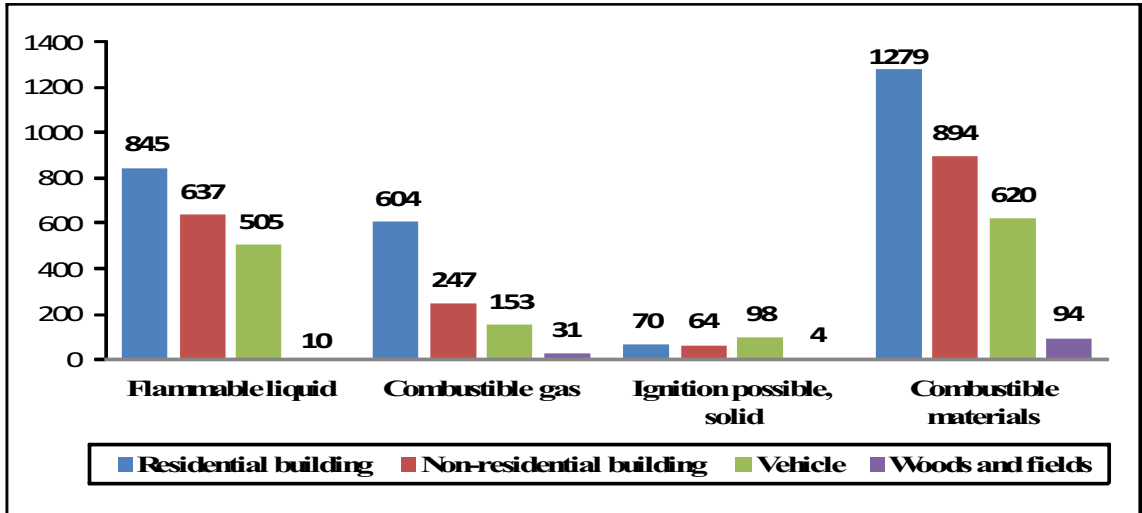
<Figure 2>에서는 방화동기별 방화현황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단순우발적, 불만해소, 가정불화, 정신이상, 비관자살, 화재, 보험사기, 보복, 범죄은폐, 사회적 반감, 채권채무, 시위, 미상, 기타 등으로 구분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화재는 범주가 매우 넓고, 보복, 범죄은폐, 사회적 반감, 채권채무, 시위는 비교적 발생률이 낮고, 그리고 미상과 기타는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워 분류항목에서 제외했다.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순우발적, 불만해소, 가정불화, 정신이상, 비관자살로 구분하였다.

발화 발생 장소는 각 항목에서 모두 주거건축물에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부분 비주거건축물, 차량, 임야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신이상 항목에서는 차량보다 임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관련된 사례를 사례분석 임야에서 다루었다. 또한, 비관자살에서 주거건축물, 차량, 비주거건축물, 임야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에서 연탄불로 인한 질식사나 전소를 시켜 자살시도를 하거나 동반자살을 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았고, 이 사례들이 하나의 자살 패턴으로 되어 모방하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방화동기는 단순우발적(1,668건, 36.33%)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1,100건, 23.96%), 불만해소(739건, 16.10%), 정신이상(563건, 12.26%), 비관자살(521건, 11.35%)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우발적, 불만해소는 분노 조절 장애에 비롯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불화와 비관자살

또한 심리적인 영향과 매우 관련이 높다.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 또한 하나의 심리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우발적인 방화범죄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다음 사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분노 조절 장애(심리적)이 대부분 우발적인 방화범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볼 수 있다.



<Figure 3> The current status of arson using fuel (2005~2014 years)

※ Source: A Reco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National Fire Data System(2015).

<Figure 3>에는 사용 연료별 방화현황에 대해 나타내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인화성액체, 가연성 가스, 점화 가능한 고체, 일반가연물, 폭약, 미상, 해당사항 없음, 기타로 구분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용률이 높은 인화성액체, 가연성 가스, 점화 가능한 고체, 일반가연물로 구분했다.

방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일반가연물(2887건, 46.9%), 인화성액체(1997건, 32.45%), 가연성가스(1035건, 16.82%), 점화 가능한 고체(236건, 3.83%) 순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 석유 등으로도 방화범죄를 누구나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화성액체, 가연성 가스, 점화 가능한 고체, 일반가연물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부분 방화범죄는 유류화재나 폭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정도(전소)가 매우 심해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다. 또한, 발생이 매우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 방화 범죄로 결론짓고 방화범을 찾는 데 매우 어렵다.

III.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사건·사례 분석

사례 1. 인천 십정동 방화사건

1) 사고개요(Weeklytoday, 2013)

- ① 사고일시 : 2013년 5월 13일 오후 5시 50분경
- ② 사고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단독주택
- ③ 사고과정 : 1년 전 세입자는 작은 방 천장에 샌드백을 설치했고, 이에 집주인은 샌드백 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말다툼을 하게 된다. 이에 격분한 집주인은 60 cm 길이의 등산용 도끼를 들고 나와 세입자 부부에게 휘두르고,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까지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세입자 부부를 구출했다. 하지만 작은 방에 있던 딸과 남자친구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질식사(추정)로 사망했다. 불과 10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사망자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극이었다.

2) 방화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방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Figure 2>에 조사된 바와 같이 주거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 건축물에서는 주로 가정 내 불화 및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발생되는데, 이 사건 역시 1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다. 얼핏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지나, 일반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폭력적 과잉행동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분노 조절 장애)는 외부 소리나 시각적 자극에 쉽게 산만하고 폭력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폭력적 과잉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형성된다.

그리고 주로 주거건축물에서 일어나는 방화는 피해자들의 지인(가족, 친인척, 고용관계, 주변사람 등)으로 인해 발생되고, 원한이나 보복 때문에 일어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방화의 대상은 재산보다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가 크고, 주거건축물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질식사에 의한 피해가 많고, 화재 발견이 늦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주거 건축물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 시너 등 인화성 액체를 주로 사용해 초기부터 빠르게 화재를 확대해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인명피해(사망)를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방화의 대상을 사람으로 하는 거에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사례 2.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

1) 사고개요(WoWTV, 2014)

- ① 사고일시 : 2014년 5월 28일 오전 00시 27분경
- ② 사고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건물 2층
- ③ 사고과정 : 방화범 80대 노인이 불이 나기 1분 전인 이날 0시 26분에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불은 2층의 가장 안쪽 병실(다용도실, 306호)에서 시작되어 불이 난 지 6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지만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져 사상자 29명(21명 사망, 8명 부상)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 방화범적의 특성과 문제점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승례문 방화사건,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을 살펴보면, 이들의 동기는 모두 달랐지만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살아오면서 유전적인 성향, 가정환경적인 영향으로 개인적으로 불만이나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고, 화내는 대상이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로 향했다는 점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개인적 문제의 원인(건강)을 사회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했고, 승례문 방화사건 또한 개인적 문제의 원인(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사회의 불만(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을 무시했다는 기분에 사로잡힌 점)으로 표출했고 마지막으로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은 개인적 문제의 원인(자신의 동의 없이 입원시킨 사실)에 대한 불만과 요양병원이 불에 타 없어지면 자신이 구출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감의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표출한 사건이다.

이 사례들처럼 화내는 대상이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로 향했기 때문에 비주거건축물을 선택했을 거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비주거건축물은 학교, 판매시설, 공공기관, 숙박시설, 관람장, 공연장, 문화재, 역사 터미널, 노유자시설 등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 인명피해가 매우 높은 건축물이므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방화)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대표적: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자신의 스트레스와 분노의 해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대표적: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 급기야 사회적인 이슈(대표적: 승례문 방화사건)까지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Yeongnam Ilbo(2008)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 일부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의학적으로 인격 이상이나 결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핍은 크게 세 가지로 ①성장기에 습득해야 할 윤리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이 형성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해쳐도 자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함. ②정서적·감정적 안정성이 부족해 감정기복이 심하고 히스테릭한 성격을 가짐. ③충동조절 능력의 결핍으로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발적 행동을 함으로 나누어진다.

사례에서 주로 나타난 결핍은 ③충동조절 능력의 결핍으로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발적 행동을 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충동적인 호르몬이 많거나 기억력, 사고력, 감정을 컨트롤하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나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처럼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현격히 떨어져 성격이 급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고, 참을성이 없어져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무런 의욕이나 감정의 변화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지내기도 한다. 뇌졸중이나 치매 등은 전두엽이 손상되는 대표적인 병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볼 수 있으므로 의학적·정신적 치료와 가족과 사회적인 관심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주거 건축물에서 동기별 방화현황은 단순우발적(539건), 불만족(249건), 가정불화(115건), 정신이상(113건), 비판자살(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가지 사례 모두 단순우발적과 불만족에 의해 발생했으며, 정신이상 또한 2가지 사례에 포함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례문 방화사건은 토지보상 문제의 불만족과 자신의 의견이 번번이 묵살되자 그에 대한 분노를 우발적으로 표출한 것이며,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은 자신의 신병에 대한 불만족과 정신이상에 의한 분노를 우발적으로 표출, 마지막으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사건 역시 불만족(요양병원 입원)과 정신이상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분노 조절 장애(심리적)에 의한 방화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례 3. 홍천 산불 방화사건

1) 사고개요(Kangwondomin Ilbo, 2015)

- ① 사고일시 : 2015년 5월 21일 오후 2시 55분경
- ② 사고장소 : 홍천읍 갈마곡리 홍천문화예술회관 뒤 남산
- ③ 사고과정 : 홍천읍 남산에서 산불이 발생, 1 ha를 태우고 2시간여만인 오후 5시10분쯤 진화됐다. 또 이날 오후 3시50분쯤과 오후 4시8분쯤 각각 홍천소방서와 인근 군부대 뒤 남산에서도 연이어 산불이 발생, 산림청 헬기 3대와 진화차 11대 등, 14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조사결과 방화범은 등산로 주변을 이동하면서 7~8분 간격으로 자신의 휴대용 가스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이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2) 방화범죄의 특성과 문제점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으로 Yonhapnews(2015)에서 방화범이 경찰 진술에서 "사람들이 불을 끄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분노 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뚜렷한 원인이나 물질적 이익이 없이 스틸이나 캐감 등 감정적으로 희열이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방화를 하는 행동을 방화광 또는 방화증이라고 하며, 병적방화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들은 이런 만족감을 계속 추구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불을 저지르게 된다.

McMurrin, *et. al.*(1994)에 의하면 병적방화 환자들은 아주 높은 내향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고, 성적·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람일 수 있어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화를 선택한다.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방화이거나,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방화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리고 방화를 반복할수록 자신의 희열이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범행 주기가 빨라지고, 수법이 지능화되며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병적방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병적방화는 분노 조절 장애의 대표적인 한 유형에 속한다. 자신이 가족이나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화를 이기지 못해 방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택해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IV. 대처방안

1. 전문적·체계적인 분노 조절 장애 치료방법 개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방법, 명상이나 요가, 기수련 등 정서적인 운동법, 긍정적인 사고, 약물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전문가의 상담 등의 방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 아동, 청소년 분노 조절 프로그램 개발

현대사회에서는 1차 사회화 과정인 가정에서 가정불화나 가족 간의 소통 부재, 부모와의 부적절한 애착 관계 형성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사 결정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에 결함이 생기게 되어 청소년 범죄가 점점 증가하며 폭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거나 가능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에게 반드시 교육을 통한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

Ministry of Justice(2014)에 의하면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인지적 기법 중에서도 행동수정을 주요 기법으로 한 인지 행동적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인지·행동적 프로그램의 경우 청

소년 대화의 광장(1995)에서 개발한 분노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동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분노 표현이나 분노 발생 시 느끼는 정서에 대한 통찰 등을 부각시켜서 인지·정서 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인지·정서·행동을 통합하는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분노 조절 교육을 포함시켜 교육시키고, 특히 1차 사회화 과정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관심을 두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범죄 행태가 점점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법적 처벌을 좀 더 강력하게 개성해야 한다.

2) 성인, 노인 분노 조절 프로그램 개발

Beck & R Fernandez(1998)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노조절 접근법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받게 되면 받지 않는 것보다 분노 감소 부분에서 76%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치료에 있어서 인지행동적 접근으로 가장 보편적인 치료모델은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방법이다. 성인과 노인의 경우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이 고착화되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자기 진술 방식을 통해 사고와 행동패턴을 변화시키고 분노가 감소될 수 있다고 본다.

Song(2005)에 의하면 이러한 인지행동상담군의 대표적 이론가인 Ellis는 심리적 장애와 정신건강을 경정하는데 인지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정서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방법으로 역기능적 인지의 교정을 강조하였다. 그는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화된 비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현재 이와 관련된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조절 방법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의 분노경향과 주의 깊은 사고의 결핍을 다루는 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마음 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 훈련, 근육이완법 인지훈련 등이 있다.

분노 조절 장애에 관련된 체계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심리적·정신적인 치료 방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화 통계치를 분석하여 방화범들의 행동패턴이나 심리적·정신적인 패턴들을 재정립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인, 노인들은 가치관이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재연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키우는(역기능적 인지의 교정)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2. 방화 연구기관 설립 및 일원화

분노 조절 장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방화 범주는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나 예측하기 매우 어렵고, 유류화재나 폭발에 의한 방화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전소하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방화(<Figure 3>에서 미상,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항목)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소방, 경찰, 보험회사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와 화재조사를 각자 진행하다가 방화로 확정되는데, 단독으로 방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해 화재조사에 항상 참가하여 방화사건으로 판단될 확률이 클 경우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방화 범주의 원인부터 대처 방안까지 연구해 방화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정신적·심리적인 연구까지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방화 연구기관에서 통계치 분석을 재작성하여 방화범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방화범주의 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방화 수사과정 강화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2013)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까지 전국 230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국의 일원화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과학적인 수사기법 개발로 인위적인 발화나 물증 파악, 목격자 진술 등이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에 붙여도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사기관(경찰)에서 방화 수사를 끈질기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방화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강력 사건에 더 관심을 쏟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현행 법령은 방화에 대한 수사기관을 경찰에 두고 있어 대부분의 방화나 화재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화재는 소방담당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경찰기관은 방화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하고 소방이 도움을 요청할 시 협력적으로 도와주는 수사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 기관간의 기준에 따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나 국민안전처의 국가화재정보센터 등에서 방화에 대한 통계 등 자료의 분석들이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 경찰, 민간기관, 보험협회, 법률 전문가 등 방화 범죄를 수사하는 데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들의 수사 과정 중 활발한 정보·증거 교류와 협력적으로 업무를 전담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화 범죄로 이끌어 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전체 화재발생 건수에서 방화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10%미만으로 지속적으로 3,000건 내외로 방화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화범죄는 단순우발적(1,668건, 36.33%)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1,100건, 23.96%), 불만해소(739건, 16.10%), 정신이상(563건, 12.26%), 비관자살(521건, 11.3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분석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한 우발적인 방화범죄라는 점이었다. 여기에는 복합적으로 가정불화, 불만해소, 정신이상 등이 함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만 취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사회나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문적·체계적인 분노 조절 장애 치료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인지·정서·행동을 통합하는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지속적으로 치료하며,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경찰수사 진행 후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이수하고,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

성인·노인의 경우 분노 조절 장애에 관한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조절 방법을 실시하거나 역기능적 인지의 교정 등을 통해 내재화되고 고착화된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변화시켜 행동과 감정(분노)까지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밖에 인지적 접근을 통한 분노 조절 방법, 명상이나 요가, 기수련 등 정서적인 운동법, 긍정적인 사고, 약물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전문가의 상담 등의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방화 연구기관을 설립해 방화범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노 조절 장애나 치매 등 정신적·심리적 부분까지 연계하여 연구, 통계치 분석 재작성 등 방화범죄의 수사나 연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화 수사과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방화뿐만 아니라 화재사건 모두를 소방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경찰, 민관기관, 보험협회,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 협력적으로 도와주는 수사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활발하게 정보와 증거를 교류하고 협력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Beck, R. and E. Fernandez. 1998.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nger: A Meta-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 63-74.

- Bradford J M. 1982. *Arson: A Clinical Stud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La 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 Choi, Jin. 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of Incendiary Fir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22(5): 9-21.
- Choi, JongTae. 2001.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Prevention of Arson.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15(2): 31-45.
- Hankook Media Network. 2015.02.09.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5. A Hot Temper and Suspicious.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 Makes Social Life Harder.
- Heo, Gyung Mi and So Eun Bak. A Study on Criminal Motivation of Arsonists. 2006. *Korea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2(1): 53-74.
- Jackson H F., C. Glass, and S. Hope. 1987. A Functional Analysis of Recidivistic Ars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175-185.
- Jeffrey Wood. 2007. *Getting Help: The Complete and Authoritative Guide to Self-assessment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Problems*. New Harbinger Publications.
- Jung, Gi-Sung. 2005.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rson and Countermeasure.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19(2): 93-104.
- Kangwondomin Ilbo. 2015.05.22.
- Lee, Sangjun, Jeahoon Han, Youngseon Ryoo, Jeaseok Lee and Uijin Seo. 2015. By Study Arson and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Korean Institute Fire Investigation*. 2015: 73-84.
- Li, S. Y., S. J. Ni, and S. F. Shen. 2014. *Risk Analyzing on Target of Arson Attack*. Procedia Engineering.
- Mcmurran, Mary and John Hodge. 1994. *The Assessment of Criminal Behaviors of Clients in Secure Settings*. London: Jessica Kingsley.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3.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y.
- Ministry of Justice. 2014. Development of Children Victim's Anger Management Program for Decrease of Assessment of Sexual Abused.
- National Fire Data System of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 Song, Mi Kyeong. 2005. The Effectiveness of Anger Control Program of Alcohol Depend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367-381.

Yonhapnews. 2015.05.27.

Yeongnam Ilbo. 2008.02.19.

Weeklytoday. 2013.05.25.

WoWTV. 2014.05.28.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원도민일보. 2015년 5월 22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욱!’하고, 의심하고...사회생활 어렵게 하는 ‘인격 및 행동장애’.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2015.

법무부. 2014. 학대후유증 감소를 위한 피해아동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서울경제. 2015년 2월 9일자.

송미경. 2005. 알코올의존 환자를 위한 인지정서행동적 분노조절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67-381.

연합뉴스. 2015년 5월 27일자.

영남일보. 2008년 2월 19일자.

이상준, 한재훈, 류영선, 이재석, 서의진. 2015. 방화와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연구(방화사건을 중심 으로).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2015: 73-84

위클리오늘. 2013년 5월 25일자.

정기성. 2005.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19(2): 93-104.

최종태. 2001. 방화 범죄의 특성과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지. 15(2): 31-45.

최진. 2008. 방화화재의 특성 및 방재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지. 22(5): 9-21.

한국경제TV. 2014년 5월 28일자.

허경미, 박소은. 2006. 방화범의 범죄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2(1): 53-74.

행정자치부. 2013.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유지선: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과 재학중이다(yjsmeto@hanmail.net).

정영진: 인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Comparison of Combustion Properties of Native Wood Species Used for Fire Pot in Korea(2010)”, “Flame Retardant Properties of Polyurethane Produced by the Addition of Phosphorous Containing Polyurethane Oligomers(II)(2009)”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화재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물안전 등이다(yjchung@kangwon.ac.kr).